

도서관, 전환 을 위 한 대화

제60회
학술
대회

느티나무도서관포럼
2023.10.19. 9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A호

발표

21세기형 도서관: 모두가 하도와 낙서를 그려가는 곳

#삶을 바꾸는 지식 커먼즈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커먼즈

#로컬의 힘을 키우는 지역사회 플랫폼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사례

시민의 실험실 - 도서관에서 지식은 동사다

#골목상점 도서관에서 동네수리소, 지역농장까지

김차경 느티나무도서관 사서

토론

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패널 백영경 홍기빈 · 사회 이소연 느티나무재단 이사

느티나무재단
회원도서관문화재단 씨앗

주최 느티나무재단

시 간	내 용
09:00 ~ 09:15	<p>[발표]</p> <p>21세기형 도서관</p> <p>: 모두가 하도와 낙서를 그려가는 곳</p> <p>#삶을 바꾸는 지식 커먼즈</p> <p>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p>
09:15 ~ 09:30	<p>[발표]</p> <p>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커먼즈</p> <p>#로컬의 힘을 키우는 지역사회 플랫폼</p> <p>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p>
09:30 ~ 09:40	<p>[사례]</p> <p>시민의 실험실: 도서관에서 지식은 동사다</p> <p>#골목상점 도서관에서 동네수리소, 지역농장까지</p> <p>김차경 느티나무도서관 사서</p>
09:40 ~ 10:20	<p>[토론]</p> <p>도서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p> <p>패널 백영경 홍기빈 · 사회 이소연 느티나무재단 이사</p>

목 차

발표

01. 21세기형 도서관 p. 1

: 모두가 하도와 낙서를 그려가는 곳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02.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커먼즈 p. 4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사례

03. 시민의 실험실 p. 9

김차경 느티나무도서관 사서

21세기형 도서관: 모두가 하도와 낙서를 그려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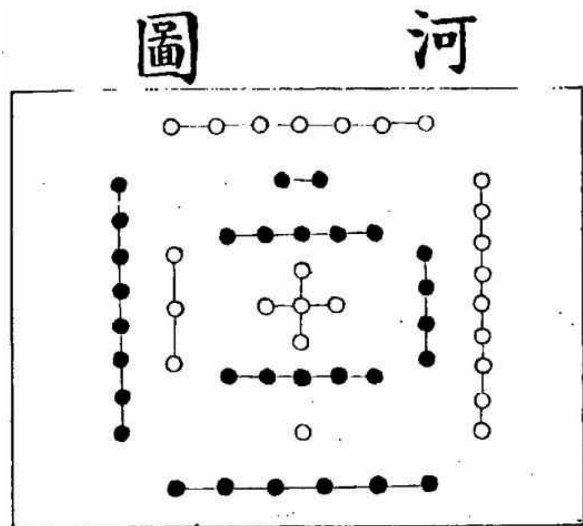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1. 하도와 낙서

도서관에 해당하는 서양 언어들 library와 bibliotheque은 모두 종이와 책을 뜻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도서관 圖書館은 단순한 번역어가 아니라 동양 및 중국 철학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를 줄인 말이다.

하도와 낙서는 동양 철학 특히 주역 나아가 기문둔갑(奇門遁甲)등의 여러 술수(術數)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초 개념이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이유도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복희씨(伏羲氏)에게 나타난 천룡(天龍)이 전해준 하도는 선천(先天)의 질서 즉 하늘이 열리기 이전의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요, 우왕(禹王)에게 나타난 거북이 등의 낙서는 후천의 질서 즉 하늘이 열린 이후의 질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칠게 어거지로 단순화하여 다시 말한다면, 하도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물과 세상의 운동이 벌어지는 것 이전의 순수 논리 세계에서의 질서 즉 체(體)를 나타내는 것이요 낙서는 그러한 운동이 시작된 이후의 질서 즉 용(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전승에 따르면, 상서(尙書)에 나오는 바 기자(箕子)가 설명하는 홍범구주(洪範九疇)가 바로 이 낙서의 질서를 풀어놓은 것이라고 한다.

하도와 낙서는 아무에게나 개방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오로지 왕자(王者)만이 열람하고 생각하도록 비장(秘藏)된 문서이자 그림이었으니, 이를 보관하는 곳을 도서관이라고 했다. 세상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영구히 변하지 않는 질서를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변하고 또 변하여 예측불허인 세상의 변화의 질서를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필요로 한다. 그래야 능히 세상을 다스리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었다.



2.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네틱스

21세기의 도서관의 미래는 바로 이러한 동양에서의 용어인 ‘하도와 낙서’에서 그 비전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억지스런 전통의 계승을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공지능과 데이터 혁명 등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디지털 혁명의 근본적인 성격을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에서 찾을 수 있다. 수학자 노베르트 위너(Nobert Wiener)가 제창한 사이버네틱스는 사물과 기계, 생물과 사람과 사회 모두를 정보의 흐름으로 이해하여 스스로의 자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 개별적인 것과 그것을 포괄하는 집단적인 것 모두가 이렇게 되면 정보 신호의 흐름으로 환원되어 모두 동일한 것이 되고 또 서로 소통하고 교호하면서 하나로 엮이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네틱스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매개가 되었던 것이 디지털 혁명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진법, 전기 신호, 반도체라는 도구 들을 통하여 디지털 혁명은 인간, 사회, 자연의 만사만물 천태만상을 모두 정보의 흐름으로 해체하여 축적하고 유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더욱 중요한 사건은 제어 혁명(control revolution)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보의 흐름은 실제 세계에서의 사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지식과 정보라는 무형적 정신적 요소와 기계와 에너지라는 유형적 물질적 요소는 서로 소통하고 교호할 수 있는 동일한 것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이에 산업 패러다임과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격변이 벌어진다. 이것이 1990년대 이후 지구화와 맞물리면서 이루어진 정보 혁명, 디지털 혁명, 요즘 쓰이는 말로 4차 산업혁명의 대격변의 근본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람의 위치와 ‘감가’

이에 산업사회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 또한 변화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에서 보듯 자본 기계와 대등한 위치로서의 ‘노동’으로 존재하던 인간은 이제 최고의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가장 높은 가치의 ‘자본’으로부터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에 이르는 긴 연속선에 세세하게 분류되어 배치되는 존재가 되었다. 어떤 이는 더 높은 지식 정보의 생산과 처리 능력을 가지고 높은 가치의 ‘자본’이 되며, 어떤 이는 그 반대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노동이 되었다.

‘인적 자본’의 감가(depreciation)은 급작스럽게 그리고 강렬하게 벌어진다. 기술 혁신과 지식 정보 생산의 변화에 따라 아주 높게 평가되던 지식과 정보 생산 능력은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의미도 없는 0에 가까운 가치로 폭력적으로 절하된다. 태어나서 30세까지 공들여 축적하고 조성해 놓은 ‘인적 자본’이라고 해봐야 ‘인적 자본 시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형편없는 가치로 폭락해 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다시 자본을 형성해야 하지만, ‘인적 자본’도 다른 자본

과 마찬가지로 자본 형성의 비용 즉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인적 자본’의 회복과 조성에는 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일반적인 금융 시스템과 달리, 아직도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적 자본’의 조성 비용을 조달해주는 포괄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도서관, 하도와 낙서

여기에서 21세기 도서관, 즉 하도와 낙서를 담아둔 곳으로서의 도서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도서관은 ‘library’나 ‘bibliotheque’처럼 책을 담아둔 곳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 질서를 생각하고, 또 지금 눈앞에서 정신없이 변화하는 변화의 질서를 포착하고 따라간다는 두 가지의 필요에 응하여 사람들이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역(易)의 정신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하도와 낙서를 담는 곳. 도서관은 책으로부터 풀려날 필요가 있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모아지고 퍼져나가는 포괄적인 지식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잡다한 정보와 지식을 모두 모아두자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그러한 목적에서 체계적으로 고르고 선별하고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오래 전에 불타버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오랫동안 무수한 지식인들이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했다. 고대 이집트의 “세 번 위대한(thrice greatest)” 헤르메스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지식이 담겨 있었던 곳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스톡(stock)이 아니라 플로우(flow)이다. 지식의 저장기 아니다. 지식의 흐름이다. 도서관은 “변하지 않는 것”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자극하는 곳일 뿐이다. 그 흐름의 역동성으로 21세기의 도서관은 녹아들어가야 한다.

[발표2]

제 60회 전국도서관대회 도서관, 전환을 위한 대화

도서관에서 만들어가는 커먼즈

로컬의 힘을 키우는 지역사회 플랫폼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백영경

노타나문화재단

커먼즈란

- 자원을 장기간 돌보기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존.
이 체계에 의해서 공동체들이 자원을 (고갈될 수 있는 자원과 고갈되지 않는 자원 공히)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거나 최소로 의존하며 관리.
- 우리가 함께 물려받거나 창출한 부를 가리키는데, 이 부를 우리는 감소되지 않은 채로 혹은 더 증가된 채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집단적 부에는 자연의 선물들, 사회 기반시설들, 문화 생산물들, 전통들, 지식이 포함된다. 커먼즈의 총목록이란 없다.
어떤 공동체가 자원을 집단적인 방식으로, 균등한 접근 및 사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특별히 초점을 두어 관리하고 싶다고 결정할 때마다 커먼즈가 생성.

노타나문화재단

커먼즈와 돌봄

- 커먼즈는 자원이 아니다. 자원 + 윤곽이 뚜렷한 공동체 +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그 공동체가 고안해내는 프로토콜들, 가치들, 규범들이다. 대기, 태양, 유전자 지식, 생물다양성과 같은 많은 자원이 커먼즈로서 관리될 절실한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커먼즈 형태들과 실천들이 모든 수준—국지적·지역적·일국적·전지구적 수준—에서 필요. 그리고 커먼즈들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연합과 상이한 커먼즈군(群)들 사이의 새로운 연결이 필요. 특히, 거버넌스를 생태 현실에 맞추는 것을 돕고 정치적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화해를 위한 힘으로서 복무할 초국적 커먼즈들이 필요하다. (볼리어)
- 기존 커먼즈의 관리 & 새로운 커먼즈 만들기 모두가 “돌봄”으로 볼 수 있는 일이다.

노티낙무재단

확장된 돌봄 개념의 이해

- 코로나 위기 이후 돌봄 개념은 계속 확장 중
 - 돌봄이란 모든 것을 돌보는 사회적 능력과 행동들이며 이는 생명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서 필수적. 돌봄은 가족간 돌봄으로부터 요양원이나 병원, 보육시설, 학교에서 실제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직접적인 돌봄, 필수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매일의 서비스를 당연히 포함.
 - 나아가 협동과 연대 경제를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일, 주거권을 보장하고 화석연료 산업을 축소하며 녹색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위해 일하는 활동 역시 포함.
 - 돌봄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지구 상에 살아 있는 여러 생명체들이 지구 자체와 함께 살아남아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조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노티낙무재단

돌봄의 위기와 커먼즈

- 현재의 사회재생산의 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자유주의 시대 커먼즈의 파괴와 돌봄의 위기.
만물의 상품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오래된 현상이지만 그 중에서 생명 재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들, 시간, 교육, 의료, 돌봄 등 이전에는 상품화 정도에 한계가 있었던 영역.
- 즉 만물이 상품화되는 중에도 이것만은이라고 생각되던 영역에서 전면적인 상품화 +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심한 정도의 상품화가 진행되어온 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현실
→ 삶의 재생산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 출생률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지표들로 확인됨
- 따라서 돌봄의 위기라고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모두의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
위기 담론이 조장하는 위기 의식 → 자기돌봄 담론 부상의 배경이 되기도 하며, 보험이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소확행’을 추구하게 만들기도 함.

노타낙무재단

돌봄의 사회화와 상품화

- 사회관계의 전면적인 재편 없이 돌봄의 사회화나 돌봄 서비스의 확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돌봄 영역을 저임금·불안정 노동,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어려움.
- 돌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돌봄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돌봄의 위기라는 이중적인 맥락
→ 국가/시장에 의존하는 돌봄의 사회화 담론과 개인화된 자기돌봄 모델을 넘어서 필요성 → **커먼즈!**
- 돌봄에는 자기/타인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 있으며, 착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범성, 연대가 아닌 시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뤄야 할 개념.

노타낙무재단

돌봄의 급진화

- 현재 한국사회 돌봄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부분. 왜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취약한가: 사회재생산 논의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산 정치(the politics of reproduction)와 재생산 정의(reproductive justice)의 문제 의식을 빌어올 필요.
- 돌봄은 (수혜자와 제공자 모두에게서) 특히 취약한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를 강조할 필요. 그럴 때라야 다른 사회, 새로운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음: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을 포함하여 사회의 문제를 함께 바꾸는 노력이 돌봄에서 빠질 수 없음. “돌봄 선언”을 비롯한 팬데믹 이후에 출현하는 새로운 실천들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능성과 필요성.
- 커먼즈와 돌봄은 불가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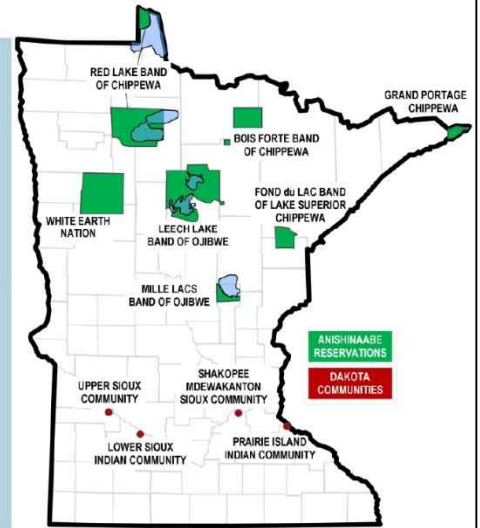
노타낙무재단

돌봄과 커머닝, 그리고 도서관

- 도서관과 커먼즈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주로 디지털 커먼즈/정보 커먼즈, 러닝 커먼즈 등의 내용들.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
AI에 대한 내용도 많다.
-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서관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보의 문제나 학습의 문제 모두 실제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디지털 세상 “만”의 문제는 없다는 것.
- 거꾸로 커먼즈를 꿈꾸는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의 역할은 넓은 의미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커먼즈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깊이를 탐색할 수 있는 구심점.
-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디지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을 연결하며, 지식의 영역과 감각적인 경험의 영역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도서관.

노타낙무재단

몇 가지 사례들



노타나문화재단



노타나문화재단

[사례]

제 60회 전국도서관대회 **전환을 위한 대화**

시민의 실험실: 도서관에서 지식은 동사다



노티나무재단 김차경

도서관
노티나무재단

삶터 곳곳에서

만나는 도서관

#골목상점 도서관 #동네수리소 #지역농장

노티나무재단

2023년 느티나무가 만난 사람들



골목 상점

가게 주인장,
골목 단골 손님



느티나무도서관



동네수리소

자원순환 활동가,
골목 상점



지역 농장

친환경 농부,
도시의 베짖이 농부들

느티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골목 상점

가게 주인장,
골목 단골 손님

느티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 횃집, 펍, 꽃집, 피자집, 해물찜, 카페, 빵집 ... 상점 귀퉁이를 미니 도서관으로
- 배달 어플로 책을 고르면 주문한 피자, 꽃과 함께 배달
- 카페가 지역예술가들의 콘서트장으로



노티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다짜고짜 컬렉션을 들고 찾아간다고?”

가게의 컨셉이 떠오르는 이미지로 홍보물을 만들고,
컬렉션에서 한 구절을 발췌해 책갈피를 만들면 어떨까?

주인장들의 연령대와 관심사가 다양하니, 질문을 던져서 컬렉션을 만들자.

Q. 내 인생 책?

Q. 최근에 만난 기억에 남는 손님

Q. 지금 당장 딱! 하나의 고민이 말끔히 해결된다면? 어떤 고민일까?

노티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 앞면에는 가게의 로고를, 뒷면에는 가게별 컬렉션 한 구절과 상점도서관 지도를!



노티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상점도서관: 카페 어텀브루

-주인장의 고민 & 공간 컨셉에 맞춘 컬렉션 기획

“쌍둥이 형제가 운영하는 카페 겸 재즈바.
골목 초입에 위치, 주로 20~30대 손님이 많다.
레트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공간에 공을 들였다.
컬렉션 서가가 카페에 들어오면 책 읽는 손님들이 많아질 텐데
회전율이 살짝 걱정된다.”_주인장의 고민

“글밥이 많은 책보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진집을 모아두자.
레트로 컨셉의 공간과 맞닿은 현대 미술 입문서나 강렬한 사진집만
모아도 시너지 발휘할 듯.”_수서회의록



노티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상점도서관: 카페 어텀브루

<레트로: 과거를 재현한 현재>

#과거 #시대별 예술 #노스텔지어 #사회 비평 #예술 #사진집



노티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상점도서관: 카페 어텀브루

<레트로: 과거를 재현한 현재>

#과거 #시대별 예술 #노스텔지어 #사회 비평 #예술 #사진집



노티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타이니 콘서트: 재즈카페에서 해금 연주를!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상점도서관: <씨니스피자마켓>

-가게의 브랜딩 함께 고민하고, 컬렉션으로 응답하기

“가게를 연 지 3년이 넘었는데 협업 제안이 온 건 처음이라 반갑다.
근처 상권과 도서관이 협업하는 사례가 널리 퍼졌으면.
주로 배달 손님이 많고, 가게에서 먹고 가는 손님도 점점 늘고 있다.
공간은 캘리포니아가 떠오르는 화창한 느낌의 피자가게.
다양한 연령대가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_주인장의 이야기

‘번아웃’이나 ‘덕질’을 다룬 책부터 전 연령대가 함께 볼 그림책.
‘피자’ 하면 떠오르는 색, 모양, 질감으로 공간 브랜딩과 어우러지게!

_수서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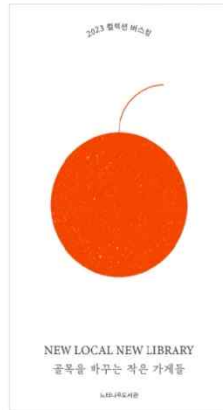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상점도서관: <써니스피자마켓>



▲ 가게 외관



◀ 피자 도우와 해를 연상시키는 책갈피 디자인!

▼ 그림책 『아빠와 함께 피자놀이』



노티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상점도서관: <써니스피자마켓>

<아빠도 처음이란다>

#그림책 #초보 아빠 #육아 #가족



<번아웃: 소진과 버팀 사이>

#스트레스 #노동 #자기계발과 착취 사이



노티나무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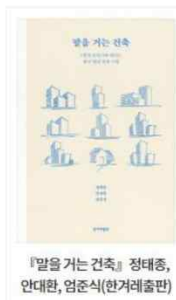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상점도서관: <마실커피>

- 레퍼런스 서비스는 사서의 몫인 줄만 알았는데?!
- 주인장이 제안한 자료들, 더할 나위 없이 맞춤형 레퍼런스 & 컬렉션을 엮을 아이템

<이야기를 담은 건축: 업사이클링>

#지속가능한 건축 #공간 디자인 #도시 설계



노다나무재단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카페 한켠에서 작고 작은 콘서트?!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이 작은(?) 카페에서 공연이라니! 생각도 못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꽉 찬 적은 처음이에요.
‘타이니 콘서트’까지 하고 나니 “어? 이거다!” 싶더라고요.
컬렉션이 들어오고 나서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컬렉션을 오래 오래 공간에 두고 싶어요.

어텀브루 주인장



타이니콘서트

컬렉션 버스킹: NEW LOCAL NEW LIBRARY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카페를 열면서 책과 가까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 기회도 시간도 없어서 시도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서관과 컬렉션 버스킹을 하면서 첫 단추를 꿰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카페를 도서관처럼 들르고 컬렉션에 관한 이야기도 먼저 하는 게 신기하고 좋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직접 기획한 카페 공연을 주기적으로 열어보려고요.

마실커피 주인장



타이니콘서트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써니스피자마켓 주인장



노티나무재담

지역 농장
환경 농부
시의 베프가 농부들



노티나무재담

도시와 농촌을 잇는 팜파티 FARM - PARTY

- 로컬푸드 컬렉션부터 농장 일손 돕기, 농부와의 대화까지! 도시와 농촌, 노동과 예술의 만남
- 농장 한복판에서 작은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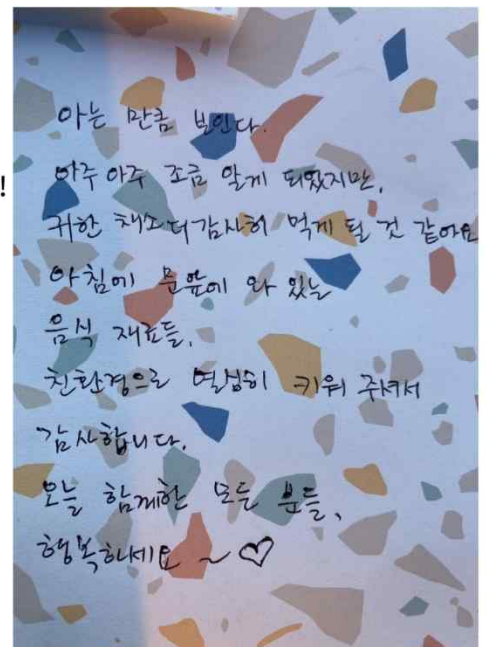


도시와 농촌을 잇는 팜파티 FARM - PARTY

- 도시의 베짖이 농부들과 친환경 농업인의 만남 <농부와의 대화>
- 서툰 실력으로 농장 일손도 보태고 함께 들밥도 지어먹고... 삶이 곧 레퍼런스!



▲ <농부와의 대화> 현장



▲ “아는 만큼 보인다. 아주 아주 조금 알게 되었지만.” 참가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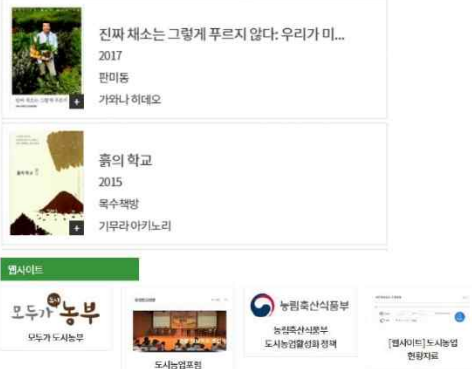
도시와 농촌을 잇는 팜파티 FARM - PARTY

- ‘전문가’와 함께 엮는 컬렉션! 연구자, 현장 활동가, 관심 있는 시민...
- 컬렉션을 만들고 확장, 발전 시켜가는 모든 순간 & 상호작용이 도서관!

“농부들에게 추천 받은 자료들,
고민했던 지점과 맞닿은 조례, 영상을 컬렉션에 추가하자.
친환경 농업을 다룬 자료를 추가한 만큼,
컬렉션 제목도 **넓은 범위로 확장해보자**.
유기농과 퍼머컬처 같은 키워드도 추가!” _수서회의록

<흙을 일구다, 삶을 짓다>

#친환경 농업 #유기농 #로컬푸드 #퍼머컬처



도시농업재단

도시와 농촌을 잇는 팜파티 FARM - PARTY

- 팜파티와 호흡 맞추는 컬렉션
- 현장에서 컬렉션 대출 & 반납
- 즉석 레퍼런스도!



도시농업재단

도시와 농촌을 잇는 팜파티 FARM - PARTY

- 농부, 시의원, 공공시설 인사까지 지역 사회 구성원들 초대
- 용인시의 친환경 농업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유통, 공공급식 조례 등 대안 모색



노티나무재단

리본 Re-Born 프로젝트: 수리할 권리



동네수리소

자원순환 활동가,
바느질공방 주인장,
오래된 물건과 헤어지기 싫은 소비자

노티나무재단

리본 Re-Born 프로젝트: 수리할 권리

계획적 진부화? 패스트 패션?

소비를 늘리려고 제품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줄인다...
청바지 한 벌의 탄소배출량=자동차 이동 111KM

함께 협력해온 단체들을 '동네 수리소' 거점으로

- 협동조합 목공방, 서점, 지역아동센터, 녹색가게...
- 순환 옷가게, 동네 수리소 운영 등 지역에서
자원순환의 길 탐색하고 실천할 방법 작당모의 중!



노타나무재단

리본 Re-Born 프로젝트: 수리할 권리

- 함께 엮는 컬렉션

#로컬 #순환경제 #자원순환 #수리할 권리 #업사이클링



- 참여한 활동가들에게 얻는 레퍼런스

수리할 권리, 패스트 패션, 로컬에서 일하기...

지역 내 자원순환거점 활동가들이 참고할 자료, 공간, 사람 서로 제안, 공유, 연결

노타나무재단

What's Next?

이제 막 시동 건 리본 프로젝트,
다음 소식이 궁금하다면?
QR코드로 뉴스레터 구독!

